



교육신문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발행하는
교육 전문지입니다

이 달의 지면

- 02 사범대학/교육대학원 소식
- 03 교육과 이슈/교육단신
- 04 교육과 학문/문화평
- 05 교육과 스승
- 06 교육과 세계/교육현장노트
- 07 교육과 공동체
- 08 문화 탐방

학사 일정

5월

- 4(월)~8(금) 1학기 중간고사
- 5(화) 개교기념일-어린이날(공휴일)
- 8(금) 종합시험(4월 시험) 합격자 발표
- 12(화)~14(목)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 및 접수
- 23(토) 2020학년도 후기 입학시험 시행
- 20(수)~6.5(금)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및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6월

- 5(금)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및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마감
- 6(토) 현충일(공휴일)
- 12(금) 2020학년도 후기 입학시험 합격자 발표(예정)
- 22(월)~26(금) 1학기 기말고사
- 29(월) 여름방학 시작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독회원 등록

- 전 화 02-3290-1690
- 이메일 edunews@korea.ac.kr

- 발행인 정태구
- 주 간 박종훈
- 간 사 문장원
- 발행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창 간 1971년 5월 10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 초점

2020학년도 1학기 '초점' 지면은 '미래교육과 교사'라는 주제로 '2019 KU 예비교사 엑스포'에서 특강을 진행한 전문가 5인과의 인터뷰 기사를 연속해서 게재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와 미래교육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의 의제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등장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해외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적 교육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산업혁명과 직업 변화

18세기에 시작한 제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과 함께 기계화 혁명의 시대라면,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서 사회 구조의 변화가 일어난 시대이다. 20세기 후반 인터넷과 컴퓨터가 이끌어낸 지식정보화 사회를 제3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한다면, 제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화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는 IoT(사물인터넷), 인공지능, CPS(가상물리 시스템),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제조업과의 결합 및 다양한 산업 간 융합을 이끌어 내는 산업 구조의 개편으로 설명 가능하다.

과연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전이 직업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올까. 제3차 산업혁명이 일과 직업의 구조 변동을 가져왔다면, 제4차 산업혁명은 일의 성격, 일자리의 규모, 직업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컴퓨터의 발전으로 인한 산업 자동화가 블루칼라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한다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 발전은 화이트칼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많은 미래 전문가들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제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실행해 온 반복 업무, 고도 기술, 지식이 필요 없는 화이트칼라와 사무직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직업 중 창의성, 전문성, 감성·사회적 지능이 요구되는 직업 및 자동화 전환이 어려운 직업은 지속되고 ICT 기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스마트 기기, 5G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수요 충족을 위한 신종 직업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존의 단순 기능에서 융·복합 기능, 인간 대 인간에서 인간 대 기계, 일관성에서 다양성, 정적 데이터 활용에서 동적 데이터 활용으로 동향이 변화하여, 소프트웨어 사용보다 소프트웨어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취업에 유리할 것이다.

■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

제1차 산업혁명에서 제4차 산업혁명으로 발



김재현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전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교육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한 교실에서 60~70명이 수업을 들었던 70년대에 비하면 지금은 20~30명이 수업을 들으니 학급 인원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인원 수 감소는 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므로 교육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했다고 할 수 없다. 가르치는 내용은 변화가 있었을까. 70년대와 80년대 초·중등학교에서 배우던 과목이 여전히 존재하고 수업 내용과 방식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큰 변화가 없다. 오히려 공교육인 학교 교육은 유명무실해졌으며 사교육이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중 자신이 원하는 전공 분야가 무엇인지 알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도, 3학년이 되어서도 전공을 결정하지 못하는 학생이 50% 이상이라고 한다. 해외 대학들은 자신의 전공과 맞지 않으면 다른 전공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학 입학 시 결정한 전공을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졸업할 때까지 공부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권이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유연하지 못한 교육 시스템이다.

한편, 대학교육은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시대 변화를 잘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대학 역시 각 전공만을 가르치는 데 집착하고 있으며, 타 학문 간의 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기에 시대의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증권 투자의 경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인간 전문가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

고 있으며, 의료계에서 암의 진단도 인공지능이 더 정확하게 하고 있다. 현재의 많은 직업이 머지 않아 인공지능으로 인해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서 예전과 똑같은 교육을 고수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생각이다.

■ 미래 교육 혁명

인공지능 시대에 살게 될 미래 세대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일까.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의 일상 생활을 바꾼다고 해서 반드시 컴퓨터공학을 전공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대학의 모든 전공을 통틀어 컴퓨터를 활용하지 않는 전공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초·중등학교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매우 중요해졌다. 그동안 문·이과를 구별하지 않고 수학과 과학을 기본적 소양으로 가르쳤듯이 소프트웨어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소프트웨어의 기본적 역량을 바탕으로 각 전공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를 인식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더불어 전공의 틀을 깨고 과감한 변화를 감행해야 한다.

뉴욕대학교 스콧 갤러웨이 교수는 저서 <더 포(The Four)>에서 포노사피언스(Phono Sapiens)의 등장을 다룬다. 포노사피언스란 하루 일과를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는 신인류를 의미한다. 디지털 문명을 접하며 살아가는 미래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도 학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받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그 자체의 발전도 있으나 향후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가상현실 기술이 교육 현장에 접목되어 이론으로만 배우던 교육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생들 앞에 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이 관찰자에 머무르지 않고 가상현실에 투입된 본인의 아바타를 통해 상호작용함으로써 이론이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되는지 학습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예컨대 학습 로봇은 다양한 기기를 통해 학생들의 동반자이자 학습 동료가 될 것이다. 또한, 선생님과 학생을 연결시켜주는 소통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변화를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는 학교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미래 세대를 가르치는 초·중등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재민 기자 latinkerbella@korea.ac.kr



지금, 당신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대학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열어갈 고려대학교가 원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으로 국제전문가 양성



맞춤형 장학프로그램을 통한 우수인재 후원



초일류 석학들의 창의연구 (Creative Research) 지원



미래를 개척할 인프라 (교육연구시설, 첨단실험 시설 등) 구축

정기기부신청서

기부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19	년	월	일
※법적 생년월일 기재						
구분	<input type="checkbox"/> 교우 입학연도 대학(원)	년	<input type="checkbox"/> 교우 학생성명 대학(원)	과	과(과정)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input type="checkbox"/> 고대를 사랑하는 사람			
기부금액	<input type="checkbox"/> 1구좌	<input type="checkbox"/> 3구좌	<input type="checkbox"/> 5구좌			
	<input type="checkbox"/> 10구좌	<input type="checkbox"/> 30구좌	<input type="checkbox"/> 기타()구좌	※1구좌 매월 1만원		
자동이체 정보	은행명	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			
기부 권유자	성명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등 자동이체 서비스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금융결제원과 은행에 제공되며 법령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기부증서 후에도 보관됩니다. 금융결제원 및 은행은 고객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자동이체결과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에 관한 위 사항에 동의하며, 열과 같이 정기기부를 신청합니다.

작성하신 신청서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신 후 1666-3403(문자수신 전용)으로 보내주세요.

2020학년도 1학기 종합시험 시행



응시 자격은 1학기 이상 이수한 자(1학기 학적 및 성적이 완료된 학기 기준, 야간·계절 공통)이다.

종합시험 과목 중 외국어 과목은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다. 학기 중 개설하는 공통영어를 수강하고 시험에 통과한 자와 외국어 공인인증시험의 면제기준을 충족한 자가 이에 해당된다. 외국어 과목 면제를 희망하는 학생은 종합시험 신청 기간에 외국어면제신청서 및 공인영어성적표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공통영어 과목을 통과(pass)한 자는 자동으로 외국어 과목이 합격처리되므로 해당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5학기에는 공통영어를 수강할 수 없으므로 이에 유의한다.

공인영어성적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TOEIC 730점 이상 또는 TOEFL PBT 520점(CBT 190점, IBT 68점) 이상, TEPS 294점 이상, IELTS 5.5급 이상 취득해야 한다. 다만, 영어교육 전공에 한하여 외국어 시험면제기준을 TOEFL PBT 580점(CBT 237점, IBT 92점) 이상 또는 TWE 5.0 이상, TEPS 426점 이상, IELTS 6.5급 이상이어야 한다. 교직 과목의 경우도 재교육과정은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 과목의 평균이 A 이상이면 면제받을 수 있다.

김경임 기자 bluewhale@korea.ac.kr

지난 4월 10일(금) 오후 6시부터 윤초우선교육관 301호 등 8개 고사장에서 2020학년도 1학기 종합시험이 시행되었다. 시험은 총 세 과목으로 1교시에는 교직, 2교시에는 전공, 3교시에는 외국어 시험이 치러졌다. 합격자 명단은 5월 8일(금) 교육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종합시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종합시험 기신청자 중 5학기 이상 교육대학원생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다. 4학기 이하 교육대학원생은 향후 상황에 따라 6월 초 무렵 종합시험이 추가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5학기 이상 기신청자는 총 94명이었으며,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및 문자 공지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지침을 전달하여 이를 준수하는 경우만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응시자는 개인 위생 마스크 착용 후 시험 응시, 종합시험 시행일이

전 문진표 작성 후 시험일 당일 제출, 발열 여부 체크 후 고사장 입장이라는 절차를 따랐다.

또한, 본교는 각 고사장마다 20명이 넘지 않도록 응시인원을 조절하고, 책걸상을 앞뒤 한 칸씩 띄어 배치하였으며 응시자의 양옆을 두 좌석씩 비워두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한편, 석사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종합시험(교직 과목, 전공 과목, 외국어 과목)에 모두 합격해야 한다. 시험 성적이 70점 이상일 경우 합격이며 2014학년도 1학기부터는 전공 과목별 합격을 인정하고 있다.

교직 및 전공 과목의 경우 2학기 이상 이수한 자(2학기 학적 및 성적이 완료된 학기 기준)이면서 12학점 이상, 평균 성적 B 이상 이수자(야간·계절 공통)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어 과목은 영어, 한문, 일본어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제20기 교육경영 AMP 화상 오리엔테이션



지난 4월 22일(수) 오전 11시 '제20기 교육경영 AMP 화상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본 일정은 교육대학원 정태구 원장, 박종훈 부원장, 문택수 부장, 이현정 차장 및 제20기 교육경영 AMP 원우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채진 담임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참석자들은 대면 회의를 대신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화상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였다. 정태구 원장은 "제20기 여러분을 실제 대면이 아닌 화상으로 뵙게 된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경영

AMP를 선택하신 여러분을 뵙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라며, "여러분과 멋진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고려대학교에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라고 환영의 인사말을 전했다.

제20기 교육경영 AMP는 2021년 2월까지 진행되며, 5월 13일(수)부터 매주 수요일 경영의 기법과 리더십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경영 AMP의 입학식은 5월 6일(수) 오전 11시에 교우회관 안암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la@korea.ac.kr

2020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5월 4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2020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이 이루어진다. 본교는 2009학년도부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소수의 학생이 실습학교를 개인적으로 섭외한 경우에 한하여 2학기 실습을 운영하고 있다. 실습기간은 실습을 수행할 학교와 협의하여 9월, 10월, 11월 중 4주간 실시하면 된다.

학교현장실습의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다.

△10학년 이전: 본교 사범대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으로 2020학년도 2학기에 5학기 이상 재학(예정)인 학생 또는 교육대학원생 중 2020학년도 2학기에 3학기 이상 재학(예정)인 학생

△11학년 이후: ○○교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과목을 이수하였거나 2020학년도 1학기에 이수 중인 학생(단, 교육대학원, 일반대학 교직과정생의 경우 2020학년도 2학기에 위 두 과목 중 한 과목을 이수하면서 실습 가능)

학교현장실습 신청서와 공문

양식은 교직원 홈페이지(http://teaching.korea.ac.kr) 또는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http://edugrad.korea.ac.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2020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협조 의뢰 공문'과 '학교현장실습 협력 승인서'를 가지고 실습 희망 학교를 방문하여 제출

△실습 학교에서 작성한 '학교현장실습 협력 승인서(학교장 직인 날인 필요)'와 본인이 작성한 '학교현장실습 신청서(원본)'를 사범대학 교직원에게 제출

사범대학생과 교육대학원생은 학교에서 학교현장실습 비용을 지원하며, 일반대학 교직과정생은 기간 내 정해진 계좌에 실습비를 납부해야 한다. 계좌는 신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 기간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학교현장실습 신청에 관련한 자세한 문은 사범대학 교직원(02-3290-1333~1335)으로 하면 된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2020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운영방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확산과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사일정 변동으로 인해 1학기 학교현장실습 운영방안이 변경되었다.

교육부고시 제6조에 따르면 학교현장실습은 1학점당 2주의 실습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필수 교직과목에 해당하는 학교현장실습(2학점)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총 4주의 실습을 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학생들의 등교 개학일이 미루어지고 있어 기존 방식과 같은 실습이 진행되기 어려운 바, 많은 학교들이 학교현장실습 일정을 변동하고 있다.

학사일정상 4주 실습이 불가능한 실습학교는 그 기간을 2주 축소할 수

있다. 단, 실습학교의 사정에 따라 2주 실습(1학점)을 하게 되는 학생은 본교의 사전교육 및 간접실습(1학점)을 이수하여야 실습 인정이 가능하다.

사전교육 및 간접실습은 지난 3월 27일(금)부터 4월 5일(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된 학교현장실습 특강(사전교육)과 향후 시행될 중앙교육연수원의 온라인 콘텐츠(간접실습)로 구성된다. 중앙교육연수원 온라인 콘텐츠는 중앙교육원 홈페이지(https://www.neti.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뒤, 2개의 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하면 된다. 단, 회원가입 시 근무기관명에 '고려대학교(7001504)', 직급명에 '일반인(U70052)', 교육대상자 구분에 '일반

국민'을 기입하여야 하며, 2개의 과정은 아래의 콘텐츠 목록 가운데 선택하여야 한다. 이는 교직원 홈페이지(http://teaching.korea.ac.kr) 또는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http://edugrad.korea.ac.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영상 진도율이 90% 이상 되고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해당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2개의 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에는 이수 확인서와 성적 화면 캡처본을 6월 19일(금)까지 교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사범대학 교직원(02-3290-1333~1335 teaching@korea.ac.kr)으로 문의할 수 있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표〉 중앙교육연수원 콘텐츠 목록

번호	영역	연수과정명(콘텐츠명)	내용	차시	대상
1	진로·상담	코칭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 코칭 기법을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에 활용	15	초·중등교원
2	진로·상담	행복교육을 위한 긍정적 소통스킬 익히기	• 교사와 학생 간 평화적 의사소통 및 문제행동별 대응 역량 강화	15	초·중등교원
3	진로·상담	학부모 상담 및 교육 참여	• 학부모의 학교교육참여 활성화 전략과 우수사례 • 학부모 상담 방법 제시	15	초·중등교원
4	교수학습	학교에서 바로 쓰는 이미지, 음성, 동영상 편집 마스터 하기	• 수업에 필요한 이미지, 음성,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자료 제작 방법 및 프로그램 소개	15	유·초·중등교원
5	교수학습	영화 수업을 통한 아이 마음 엿보기	• 영화 수업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재구성 정보 제공 • 실제 수업에 적용 가능한 영화 수업 방법 및 팁 안내	15	초·중등교원
6	교수학습	인성이 자라나는 행복교실	• 학급경영,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나눔, 평가 등을 통한 학생 중심 교실 수업을 위한 팁 안내	15	초·중등교원
7	생활지도	모두가 함께하는 나침반 안전교육	• 응급처치, 생활안전, 교통안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등 단위학교 내 지도 방법 안내	15	유·초·중등교원

2020학년도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본교 합격자 현황

교직팀이 전국 교육청으로부터 본교의 2020학년도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을 보고 받았다. 2020학년도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은 2019년 11월 23일 1차 시험과 2020년 1월 15일, 21일~22일 2차 시험으로 진행되었고, 합격자 명단은 각 시도 교육청이 지역의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다. 본교 합격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 84명(학부64, 대학원20) △세종 2명(학부2) △강원 9명(학부7, 대학원2) △경기 76명(학부49, 대학원27) △울산 1명(대학원1) △대전 3명(학부2, 대학원1) △충남 5명(학부5) △광주 3명(학부3) △전남 5명

(학부3, 대학원2) △전북 1명(대학원1) △경남 2명(학부2) △경북 3명(학부3) △부산 3명(학부3) △제주 2명(학부1, 대학원1) △인천 4명(학부4)

2020학년도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에 최종 합격한 본교 졸업생은 사범대 학부생 148명, 대학원 졸업생 55명으로 총 203명이다. 서울 소재 공립학교에는 총 84명이 임용되었고, 경기 소재 공립학교에는 76명의 졸업생이 임용되었다. 한편, 이번에 임용된 합격생들은 지난 3월부터 각 시도 공립학교에서 교직 업무를 시작하였다.

김경임 기자 bluewhale@korea.ac.kr

교육과 이슈

민주시민성 함양은 인권교육으로



임종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동국대 홍윤기 교수는 “... 국가의 주권자인 시민이 ... 정치 현상에 관한 객관적 지식을 갖추고, 정치적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비판적 의식을 갖고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 있는 정치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 습득하는 모든 과정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시민 개개인은 주권자로서 정치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다는 관점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정의한다.

우리나라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지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법률적 용어 정의는 없다. 단지, 교육기본법 제2조인 ‘교육은 ...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교육이념에 근거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을 뿐이다. 아직까지 민주시민교육의 정의와 가치, 민주시민성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교육의 방향과 과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민주시민교육은 학교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사 개개인의 의지와 역량에 의존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인성교육을 잘 하면 되는 거야.”, “인성교육을 잘 하면 되지 인권교육은 왜 필요해?”, “학생 인권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교사의 교권이 추락하고 있어.”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이러한 학교의 분위기는 민주시민교육이나 인권교육이 학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정책적 차원에서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민주시민교육을, 인성교육진흥법(2015년 시행)에 근거한 인성교육을, 법률과 국제법에 근거한 인권교육을 일선

학교에 요구하고 있다. 학교의 교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일부 교사들은 “교육은 다름 아닌 인성교육이니, 인성교육만 잘 하면 민주시민교육이나 인권교육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2019년 12월 7일 교육부에서는 광화문에 있는 코리아나 호텔에서 ‘교원양성기관과 함께 하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민주시민교육 관련법 제정을 위한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개념(안)을 ‘학생들이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고,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 가치와 절차를 이해하고, 이를 자신과 사회에 적용하여 민주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발표하였다. 1주일 후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시의회에서 ‘인권고 논란을 통해 본 학교민주시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으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와 교육 방향과 방법을 공론화하고 논의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한민국은 외형적으로는 국력이 높은 나라이다. 2010년에 공적개발원조국으로 부상하면서, 그 해에 G20 세계금융정상회담의 의장국으로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고, 2013년에 아시아 최초의 난민 인정국가가 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 이어 30년 만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도 했고, OECD에서 3년마다 시행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최상위를 기록하는 나라이다.

그렇지만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국민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이다.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사이버(성)폭력, 권력형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여전히 심각하다. 편견과 차별, 혐오와 폭력으로 얼룩진 어두운 그림자를 직면하

면서 우리 사회를 민주시민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민주시민교육이 당면한 과제는 폭력 없는 평화로운 행복사회의 구축이여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 개개인이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가치와 정의를 실천하도록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의식을 함양하는 인권교육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민주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은 어떤 교육인가? 민주시민을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으로 해석할 때 민주시민성이란, 개인적 역량과 사회와 국가에서 필요한 역량을 함의하는 개념이다. 개인적 역량은 자기관리역량, 소통역량, 분석·비판능력 등이거나, 사회·국가적 역량은 준법정신, 정의감, 도덕성, 인권 의식, 다양성 및 공공성 존중 등의 역량이다. 민주시민성 교육은 현재 교육계에서 회자되는 법질서교육, 도덕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생명존중교육, 안전교육 등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교육용어들을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이다.

그렇다면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나 사회 현안 문제를 토론했고 성찰하며, 배운 지식으로 실생활에 적용해 보는 삶을 위한 교육(Learning for Life)이어야 한다. 교사 주도의 강의는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없다. 학생 주도의 토론 방식의 수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독일은 가정의 식탁에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정치교육(민주시민교육)을 한다. 그 방법은 1976년에 16개 주정부의 교육 장관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합의한 보이텔스바흐(Beutelsbacher) 3원칙을 적용한다. 이것은 논쟁 재현의 원칙, 주입·교화 금지의 원칙, 개인적 삶의 연계성 원칙으로, 학교에서 정치·사회적 현

안을 주제로 토론 수업을 해야 하며, 토론 과정에서 교사는 개입해서 관여하지 말아야 하고, 토론 내용은 학생의 삶과 관련을 맺도록 하자는 토론 수업의 원칙이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논리에 막혀 정치·사회적인 이슈를 교실 수업에서 다룰 수 없었다. 그리고 교사들도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으로 정치 참여나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없기에 민감한 정치적 이슈는 아예 수업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학교의 교육은 진학을 위한 입시 위주의 강의식 교육에만 치중하게 되었던 것이며 지금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이제 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이자 훈육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과 출세 지향적인 고진감래형 교육에 올인하는 교육관을 하루속히 버려야 한다. ‘학생은 교복 입은 시민이며, 학교는 그들이 생활하는 시민사회’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전국적으로 확대된 학교의 #School_MeToo, 서울 인현고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집단시위, 금년부터 선거권을 갖는 만18세 고3 학생들의 정당 활동과 같은 일련의 시대적 상황들은 이미 ‘학교는 시민사회’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교육은 사회를 바꾸는 힘을 갖고 있다. 모든 교육기관은 폭력사회라 불리우는 부끄러운 우리 사회를 행복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충실히 해야 하며, 다양한 민주시민성 중에서도 인권의식 함양에 중점을 두고 교육 방법을 강의식 수업에서 토론식 수업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은 토론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학습 촉진자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육단신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제40회 장애인의 날 표창 및 장애이해교육 실시

교육부는 지난 4월 20일(월)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특별방송을 활용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장애학생 교육에 헌신한 교원 등 유공자 117명을 표창하였다.

특별방송은 장애인복지실천운동본부, 삼성화재, KBS와 협업하여 2005년부터 매년 제작하는 장애이해교육 자료로, 각급 학교는 실시간 TV라디오 방송 또는 인터넷에 배포된 방송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 개학을 실시함에 따라, 전국의 초·중등학교에서는 특별방송을 활용한 장애이해교육이 원격수업으로 이루어졌다.

초등학교는 4월 20일(월) 오전 9시부터 KBS 라디오에서 방송하는 ‘대한민국 1교사’ 함께 그리는 그림을 보며 장애에 공감할 수 있도록 감수성을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배우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방송은 초등학교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하여 단편 영화로 제작했으며, 별도의 영상으로 보이는 라디오를 동시에 제공했다. 보이는 라디오는 라디오 방송 실제 상황과 동시에 영상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이다.

중·고등학교는 4월 20일(월) 오후 1시부터 KBS 1TV에서 70분간 방영한 장애이해교육 드라마 ‘거북이 채널’을 시청하면서, 장애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드라마는 크리에이터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주인공 ‘상두’(경중 지적장애)와 ‘빛나’를 비롯한 친구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한 친구가 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교육부는 현장에서 묵묵히 장애를 가진 제자들의 교육과 사회통합을 위해 헌신한 교원 등 117명을 선정하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표창분야별 인원은 각각 교원 및 교육전문직 92명, 일반직공무원 14명, 장애대학생 지원 4명, 교육지원 관계 기관 유공자 7명이다. 수상자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학 등의 추천을 받아 공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선정하였으며, 사상은 장애인의 날을 전후하여 시도 교육청별로 진행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가 되려면 장애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각급 학교에서는 장애이해교육이 내실 있게 실시되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하며, “장애학생의 교육과 사회통합을 위해 헌신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간의 노고와 특수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격려하였다.

김경임 기자 bluewhale@korea.ac.kr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한 10가지 실천 수칙 제안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9일(목)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 온라인 개학에 맞추어 선생님과 학생이 원격수업에 대비하여 지켜야 할 실천 수칙을 마련하였다. 이번 수칙은 많은 학생이 생방향 화상수업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 사용을 위해 동시에 접속할 경우 통신망 과부하로 인터넷이 연쇄적으로 끊길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다. 원격수업 10가지 실천 수칙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학습 사이트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준수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두 가지 주제(원활한 사용, 안전한 사용)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원활한 사용’을 위해 지켜야 할 수칙은 다음과 같다.

△원격수업 들을 때 되도록 유선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와이파이) 이용하기 △e-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 등 학습사이트 미리 접속하기(일시적인 접속 폭주로 인한 장애 발생 방지)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 시작 시간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교육 자료는 SD급(480p, 720x480) 이하로 제작하기 △교육 자료는 가끔씩 수업 전(17시 이후 권장) 유선 인터넷과 무선 인터넷(와이파이)을 이용해 업로드다운로드하기

한편,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켜야 할 수칙은 다음과 같다.

△영상회의 방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링크 비공개하기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이 취약한 영상회의 앱(웹)은 사용하지 않고, 보안패치를 한 후에 사용하기 △컴퓨터, 스마트폰, 앱 등에 보안(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모르는 사람이 보낸 전자메일과 문자는 열어보지 않기 △수업 중에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촬영하거나 무단으로 촬영한 영상 배포하지 않기

정부는 이번엔 마련한 10개 수칙을 각 교육청 누리집, 원격교육 사이트(e-학습터, EBS 온라인 클래스), 보호나라 누리집(www.boho.or.kr) 등에도 공지하고 관련 수칙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도 함께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른 원격수업이 아무 불편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이 10가지 실천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원격수업은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텔레비전을 이용하여 시청하고, 출결 점검은 밴드와 카카오톡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아울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될 경우 반복해서 로그인을 시도하기보다는 선생님께 상황을 알리드리고 잠시 후 다시 접속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원격수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이트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la@korea.ac.kr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 개통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4월 1일(수)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를 개통하였다. 학교 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는 학생·학부모·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그동안 학생부 기재 관련 지침의 내용 및 변경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주는 누리집(사이트)이 없어 학부모와 교사들이 학생부 기재 방식에 대해 잘못 인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누구나 유선, 온라인, 모바일을 활용해 손쉽게 학생부 관련 정보를 찾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동안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는 ‘상담 및 정보제공’, ‘소통 강화’, ‘신고센터 운영’의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학생부 중앙지원단과 센터 내 전담 전문 인력이 담당한다.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학생부 관련 상담이 이루어지며, 유선 상담도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부 설명 영상을 8개 항목별로 게시함으로써 교사들이 궁금한 사항을 곧바로 찾아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고등학교 기초탐구 교과(군)의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도움 자료도 제공하여, 현장 교원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답변 내용과 설문조사 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교사 또는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또한 정기적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제공하여 소통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해당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교 현장과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를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게 된다.

아울러, 지원센터에 학생부 부정적 사례 신고센터를 마련하여 학생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향상해 나갈 예정이다. 학생부는 상급 학교 입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기재관리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신고센터를 설치함으로써 학생부 대립, 허위 기재 및 부당 정정 등 불법부정적 사례를 예방해 나가고자 한다.

한편, 이상부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의 개통이 교사와 교육부, 학부모 간 의사소통을 확대하여 학생부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교사의 학생부 작성 역량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교육과 학문

『맹자』 부동심(不動心)에 나타난 교육적 가치의 탐색



이진영

전주교육대학교, 경희대학교 강사

『맹자』의 인성론과 공부론

맹자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고유하게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사덕(四德)을 갖고 있다는 성(性)의 가치지향성을 주장함으로써 당대의 인성론에 존재론적인 대전환을 주도했다. 성선(性善)의 인간 존재에 대한 가치 탐색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 인성론은 맹자 철학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로서 맹자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인성론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맹자에 대한 연구가 인성론에 한정될 경우 이는 구체적 실천의 차원은 간과하고 성선이라는 추상적 개념과 논리만을 다루게 된다. 따라서 맹자의 인성론이 온전한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현실의 인간이 어떻게 자신에게 고유한 가치지향적 도덕적 본성을 실현할 것인가'라는 현실성과 실천성을 담보하는 공부론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맹자 공부론 중에서 부동심을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부동심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맹자』 「공손추상」 2장은 공

부론 전체에서 내용 전개와 분량이나 논리적 엄밀성 면에서 마음의 다른 개념과는 양과 질에서 차이가 크다. 이런 점에서 부동심은 성선의 본성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 가장 실천적 역할을 부여받은 개념으로 생각된다. 맹자는 부동심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언(知言)과 양호연지기(養浩然之氣)를 제시했다. '말을 안다'는 의미의 지언은 말과 마음의 상호반영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와 세상이 소통하는 공부를 말한다. '호연지기를 기른다'는 양호연지기에서 호연지기는 오랫동안 도덕적 행위를 함으로써 지니게 되는 도덕적 자부심, 아주 광대하고 강인한 도덕적 활력, 도덕적 자존감, 도덕적 기상, 도덕적 기개 등으로 풀이될 수 있으며 몸과 마음이 합일되는 공부를 말한다. 부동심은 지언과 양호연지기의 과정 속에서 도달해야 하는 역동적인 마음의 경지로서 다음과 같은 교육적 가치의 탐색을 기대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자포자기(自暴自棄)의 문제의식』

맹자의 공부론에서 자기수양의 성취에 앞서 다룰 것은 자기수양의 실패이다. 맹자는 자포자기라는 개념을 통하여 자기수양의 실패에 대한 문제의식과 원인을 해명하는 것이 자기수양의 성취방법으로 연결된다고 간주하였다. 맹자는 "스스로 해치는 자와는 함께 말할 수 없으며, 스스로 버리는 자와는 함께 일을 할 수 없다. 말하는 것이 예와 의가 아닌 것을 '스스로 해친다[自暴]'고 하며, 인에 머물고 의를 따르기를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버린다[自棄]'고 한다."라며, 자포는 앓의 차원에서, 자기는 실천의 차원에서 분명하게 개념 정의하였다.

맹자는 '자포자와는 함께 말할 수 없다'며 말, 즉 인식과 지식의 차원에서 말하는 한편, '자기자와는 함께 일

을 할 수 없다'며 행위와 실천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다. 맹자의 자포자기는 앓과 실천이라는 연속성과 당위성을 근거로 한 문제 제기이다. 그러나 그는 자포와 자기를 개념적으로 규정했을 뿐 둘에 대한 강약의 질적인 구분은 없었다. 이는 맹자가 앓과 실천의 상호작용에서 자기수양의 성취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성리학의 집대성자이며 『맹자집주』를 저술하여 맹자를 연구한 송대 유학자 주희는 자포와 자기를 강약의 선후 관계가 있는 질적 차원으로 구분했다. 주희는 인식과 지식의 차원에서 실패한 자포자가 행동과 실천에 실패한 자기자보다 자기수양의 실패에 빠질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앓과 실천의 연속성과 당위성』

부동심은 앓과 실천의 연속성과 당위성을 기반으로 제기되었으며, 맹자의 공부론을 해석하거나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를 문제의 식으로 삼아야 함을 말해준다. 이는 교육목적-내용-방법의 연속성이라는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여기에는 마음을 중심으로 주체와 객체, 나와 세상, 지식과 경험의 차원을 연결하는 유기적 성격이 담겨있다. 맹자의 교육목적은 인간에게 고유한 성선이 있다는 인성론을 기반으로 사단(四端)의 확충을 통해 인의예지를 실현하여 인륜을 밝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맹자는 성인의 삶을 배우고 인륜을 밝히는 삶에 근접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음을 공부의 주체이자 대상으로 설정하는 공부론을 전개했다. 앓과 실천에 대한 맹자의 문제의 식은 공부론 차원에서 전개된 자포와 자기, 그리고 부동심의 방법인 지언과 양호연지기에서 관통된다. 부동심은 지언과 양호연지기를 통하여 부동심이 성취되었을 때 가능한 시중(時

中) 혹은 권(權)의 사용이라는 일상적 맥락을 상징함으로써 교육목적을 내재화한 교육방법이 교육실천으로 연결되는 교육의 연속성을 논리적으로 보여준다.

『지언(知言)의 역할』

부동심의 공부방법으로서 지언은 앓과 실천의 관계에서 앓이 분명한 자기 지위 확보를 위해 '지식의 내재화'를 필수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지식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맹자는 지언에서 전통적 지식의 무조건·수동적 수용보다는 반성과 변별을 통한 지식의 능동적 수용을 강조한다. 지식의 내재화는 사적 차원에서 '자기에게서 돌이켜 취한다[反求諸己]'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마음의 반성작용을 촉발한다는 점에서 내적 반성력을, 다른 사람의 마음상태가 어떠한지 알게 되어 시비·선악·진위·득실을 명확히 분별한다는 점에서 외적 변별력을, 궁극 차원에서는 사회적 관계들을 설정하고 유지하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표명력을 가진다. 이러한 지언의 방향성은 자기주도학습으로서 지식교육의 자율적 측면을 강조한다.

『양호연지기의 역할』

부동심의 공부방법으로서 양호연지기는 지속적인 도덕적 실천력을 확보하는 심신의 체현화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는 지식의 내재화만으로는 앓과 실천의 연속성과 당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맹자의 문제의 식을 적극적으로 보여준다. 호연지기는 집의(集義)의 과정을 통해 신체의 활기를 도덕적 의리의 기로 전환시킨 도덕적 기상으로서, 주체적 반성력과 지속적 실천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맹자는 공부의 차원에서 기가 신체에서 기능하는 작용력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호연지기라는 도덕적 기

상의 공부를 상징했다. 또한,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확고히 믿고 나아가는 마음의 방향성과 흔들리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주재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호연지기는 앓과 실천의 관점에 있어서 지식의 내재화 차원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지식중심 교육만으로는 도덕적 실천력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교육적 가치를 제시한다.

『지(志)의 형성과 확립』

부동심은 '마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개념으로, 마음 적용의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맥락에서 '지(志)의 형성과 확립'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지는 마음에 생각하던 것이 확고해진 단계를 나타낸다. 지언은 지식의 내재화를 통해 지의 형성, 양호연지기는 심신의 체현화를 통해 지의 확립이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마음공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마음이라는 광대한 주제 속에서 마음공부의 알맹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부동심에서 언급되는 지는 지식의 내재화 과정 속에서 지가 형성되고 확립되어 실천될 수 있다는 관점과는 다르다. 부동심의 차원에서 지는 앓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적 실천의 과정에서 도달된 것이며, 마음의 방향성과 주재성이 발휘되는 가장 실천적 성격이 강한 마음의 단계로서 마음공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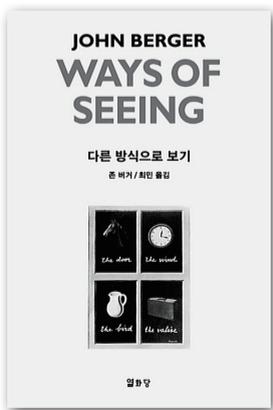
이상으로 맹자의 부동심은 자포자기의 문제의식 속에서 앓과 실천의 연속성과 당위성, 지식의 내재화, 심신의 체현화 그리고 지(志)의 형성과 확립이라는 교육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la@korea.ac.kr



교육신문 문화평

『미술』을 감상하는 다른 방식

다른 방식으로 보기(Ways of Seeing, 2012)
존 버거 지음, 최민 옮김, 열화당

『다른 방식으로 보기(Ways of Seeing)』는 미술평론가 존 버거(John Berger)를 미술사학의 문제적 인물로 자리 잡게 한 저서이다. 동시에 1972년 초판이 발행된 이래 대중들에게 꾸준히 읽혀 온 미술 관련 교양서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그가 던지는 물음은 과연 기존 미술사학자들이 주장해온 것처럼 미술사 연구의 범위를 작가, 유파, 양식의 영향 관계로만 한정 지을 수 있는지는 것이다. 그림에 대한

분석과 감상에서 미술과 분리되지 않는 "여타의 다른 삶의 영역"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그가 분석물에 포함시키는 건 '계급', '젠더' 등의 키워드이다.

1장에서 저자는 현대 미술의 '원작 숭배'를 비판한다. 어디에서나 클릭 한 번으로 명화를 접할 수 있는 '기술복제의 시대'이지만, 여전히 '원작을 직접 마주한 경험'은 특별한 경험으로 인식된다. 존 버거는 원작을 접하는 경험 자체의 무용함이 아니라 그러한 숭배가 그림을 마주하는 '경험'을 왜곡시킨다는 점을 비판한다. 저자에 따르면 본래 그림을 감상하는 행위는 작가, 작품 속 인물, 감상하는 이의 여러 시선이 중첩되면서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사유를 촉발시키는 경험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의 원작 숭배는 '나는 진품을 접했다.'는 우월감, 혹은 안도감에 대한 경험일 뿐이라는 점에서 그 본래적 의미와 거리가 멀다.

이는 통계에서도 드러나듯 1차적으로는 미술 감상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의 계급 분포와 관련되는 문제이다(원작에 대한 경험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가?). 그리고 '이미지의 언어'에 대한 권한을 쥐 현대의 미술사학자들은 미술을 현재와 유리된 신화로 포장함으로써 이런 현상을 심화시킨다. 단적인 예로 내셔널 갤러리의 14페이지에 걸친 '동굴 속의 성모' 카탈로그는 소장된 그림이 원작임을 증명하는 내

용으로 가득하다. 그림과 교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은 전무하다.

나아가 존 버거는 '여성 누드'라는 소재와 '유화'라는 기법을 예로 들며 기존의 신화에 대한 도발을 유럽 미술사 전반으로 확장시킨다.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의 미술사에서 그림의 소재가 남녀의 사랑이든, 신화 속 한 장면이든 성애(性愛)를 다룬 그림에서 누드로 그려진 여성이 등장할 때에는 관객을 응시하도록 그려지는 경우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늘 자신을 보는 남성(화가, 그녀의 남편, 귀족과 군주, 그림을 감상하는 남성 등)의 시선을 의식하고 스스로 검열해야 하는 여성의 분열된 주체성('자신'과 '자신을 검열하는 자신')을 함축한다. 이 점에서 '누드(nude)'는 자신을 온전히 드러냄을 의미하는 '벌거벗음(naked)'과 구별된다. 저자는 간단한 예시로 현대 남성용 대중잡지의 표지와 한 명화(名畫) 속 여성의 얼굴을 병치해 그 유사성을 확인시킨다.

한편 '유화(oil painting)'에는 (특히 정물화의 경우) 대상의 질감, 입체감 등을 실감나게 표현해 '실제 만질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유사한 기법은 고대에도 존재했으나, '경제의 자유'와 '개인의 소유권'의 개념이 정초되기 시작하면서 유화가 각광받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의뢰인의 면면과 작품들 전반을 살펴보았을 때, 15~19세기 유럽의 유화는 개인의 부(富)를 실감나게 과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부는 이전에도 찬양의 대상이었으나 군주, 혹은 사회의 상징으로서 그러했다. 반면 유화의 전성기에 찬양되는 부는 돈이 있다면 누구나 구매하고 교환할 수 있는 재물(심지어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로 표현된다. 그렇기에 이 시기 유화가 대상을 실감나게 묘사할수록, 그 정신적 가치는 (좋고 나쁘고를 따지기 이전에) 텅 빈 것이 되어간다. 저자에 따르면 유화의 마지막 단계는 현대의 '광고'이다. 차이가 있다면 유화가 시장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의 '현재'를 과시했다면, 광고는 시장에 종속된 사람들에게 '미래(결국은 상품)'를 위한 소비를 종용한다는 것뿐이다.

여러모로 흥미로운 책이지만, 제목 자체가 암시하듯 복수의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반론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1장에서 제시된 질문만큼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법하다. 미술을 포함해 소위 '고급스럽다'고 여겨지는 문화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일까? 공통교육 과정은 그 문화를 향유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을까? 가르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문제는 무엇일까? 등등.

문장원 기자 creep0927@korea.ac.kr

교육과 스승

시각장애학생들을 위한 도전과 헌신의 주인공, 이인학 선생님

이번 호 '교육과 스승'에서는 교육부와 조선일보사에서 제정한 '2019 올해의 스승상'을 수상한 국립서울맹학교 이인학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아낌없이 불어넣어 주시고,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멈추지 않고 새롭게 도전하는 '모험가' 이인학 선생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인학
국립서울맹학교 교사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서울맹학교에서 올해로 27년째 교편을 잡고 있는 이인학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도 근시를 겪다가 6학년 때 고열로 1주일간 사경을 헤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망막박리라고 했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2학기과 졸업식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후 아버지를 통해 맹학교가 각 시도마다 한 곳씩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광주에 있는 당시 전남맹학교(현 광주 세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한창 꿈을 키우고 인생관을 정립할 나이에 상당한 충격과 실의로 낙선 맹학교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지만 낙담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촉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점자를 알게 되면서 작은 불씨처럼 삶의 희망이 몸 안에서 스멀스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제 꿈은 교단에서 저와 같은 장애를 겪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었기에 사범대학 특수교육과에 진학했습니다. 졸업 후 맹학교에 재직하던 중 전국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도서, 수화영상도서,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확충 등 문자·문화생활을 지원할 기회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임시 휴직 후 국립장애인도서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교단에서만 장애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장애 서비스 행정업무를 2년 10개월간 배움으로써 장애 서비스의 구축과 지원 체계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교직생활 중 특별히 기쁨과 보람을 느꼈던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반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제자 최 군이 있습니다. 제가 2년간 담임을 맡아 지도했고, 학교의 상징인 브라스 밴드 단원으로 열심히 음악활동도 했던 학생입니다. 그 학생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학교

생활에 임했지만 3학년에 접어들며 엄마와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대학교와 전공을 선택하는 문제, 한시라도 아껴서 공부에 매진할 시간에 예술제나 밴드 연습 등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문제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자녀의 선택에 맡길 법도 한데, 최근의 엄마는 유독 아들과의 이리저리한 문제로 갈등이 잦아보니 저는 담임으로서 중재를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입장 모두를 적절히 설득하면서 고3 2학기에는 대학 진학에만 몰두하도록 배려해 주었고 최근 그 해 수능시험을 통해 공주대 특수교육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졸업 후 중등임용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여 일반학교 영어교사로 근무 중입니다. 언론을 통해 일반학교에서 전맹 시각장애교사가 재직하고 있다는 일화를 들었고 그 주인공이 최 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새로운 감회에 젖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기쁘고 뿌듯하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스치며 벽찬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시각장애학생 교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셨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나요?

저는 교단에 서면서 각종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어떻게 하면 더 내실 있게 펼칠 수 있을까", "급변하는 요즈음 세대에 어떤 기술이 적합한 것일까"와 같은 문제를 고민하면서 기술을 연마하고 익힌 결과입니다.

일반학생들은 세상의 직업이 다양한 만큼 꿈도 다양한데, 우리 제자들은 직업이 특정 분야로 한정되어 있어 꿈이 그리 다양하지 못하기에 미래가 상대적으로 밝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방법은, 확실한 기술이라도 제대로 가르쳐 졸업 후 특정 분야에서 자신 있게 취업하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한편, 저는 평생교육과 사회복지를 추가로 전공하게 되었고, 재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평생교육원을 개설하여 사회복지행정을 연계한 제2의 특수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근무하는 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는 재기의 꿈을 가진 20~70대의 중도 실명 성인 교육기관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직업생활을 통한 재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에 걸친 직업재활교육의 이수가 이들에게는 매우 긴 여정일 테니까요. 이미 학교를 떠난 장애학생 중 직업재활에 실패하여 전전긍긍하는 학생에게 마땅히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입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평생교육과 평생복지가 더 요구되는 집단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성인 장애인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과 복지체계를 연계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제가 잠시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배운 것이 복지행정입니다. 최근 복지행정의 패러다임은 부처 간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이로써 장애 평생교육과 장애평생복지 서비스 영역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격변 속에서도 예비교사로서 지켜야 할 가치나 자질은 무엇일까요?

가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핵심 질서입니다. 가치가 바로 세워지면 사회도 소신과 철학으로 탄탄해질 것입니다. 예비교사는 시대의 가치 질서를 올바르게 체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투영될 테니까요. 가치는 해당 세대 내 집단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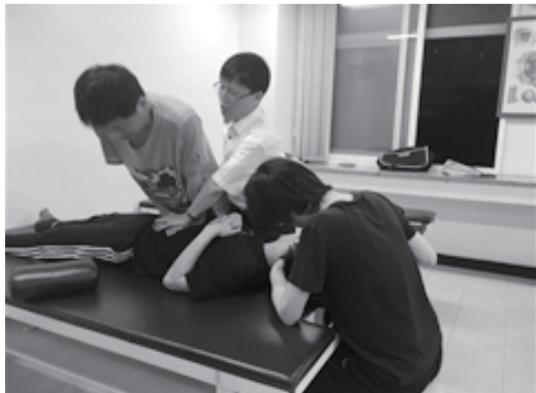
성의 결정체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비교사들은 멋진 집단 지성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끊임없이 인문학적 소양을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가치가 바로 서면 자질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가치가 내가 먹는 음식이라면 자질은 몸에 붙는 근육과 뼈인 것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데 어찌 몸이 튼튼하지 않겠습니까. 자질은 시간 질서에 따라 가치가 실현되는 결정물입니다. 따라서 '선가치 후자질'의 법칙 하에 교단에 서면 어떤 시대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다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학생들에게 당부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예비교사 여러분, 건강한 육체와 정신으로 공부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나의 우주적 실존은 나의 선택이 아니지만, 나의 운명은 내가 선택하는 미래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됩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계절은 다가오는 시간의 질서이지만, 미래는 다가가는 시간의 질서라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 앞에는 계절로 인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꾸며가는 시간의 질서만 놓여 있습니다.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la@korea.ac.kr



교육과 세계



최은수

송실대 평생교육학과 명예교수

I 벨기에 평생교육의 역사적 배경

벨기에에는 세 가지 지역 공동체인 플랑드르(Flanders), 왈로니아(Wallonia), 브뤼셀(Brussels)의 수도권 지역으로 연방화된 국가이다. 각 지역사회는 자신들만의 정부 및 공공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 또한, 플랑드르 지역은 독일어, 왈로니아 지역은 프랑스어, 왈로니아의 소수 일부 지역은 독일어, 브뤼셀 수도권 지역은 독일어와 프랑스어 이중 언어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징은 각 공동체 안에서 교육이 어떻게 취급되는지의 문제를 낳기도 하였다.

1831년 제정된 헌법에서는 일찍이 교육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으나 지역과 언어에 따라 교육은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플랑드르 지역에 있는 1423년에 창립된 루뱅대학교는 가톨릭 대학으로 2개 언어를 병용하고 있다. 1834년에 창립된 브뤼셀 자유 대학교는 지금은 사라졌으나 당시 종교와 관계 없는 학교이면서 마찬가지로 2개 언어를 병용하였다. 한편 1817년에 창립된 리에지대학교는 프랑스어를, 헨트대학교는 네덜란드어를 사용하고 있다.

벨기에에는 1914년, 6~14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는 18세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공립 및 사립학교가 교육을 담당하는 이중 교육제도를 갖고 있으며, 공립학교가 전체교육의 43%, 주로 가톨릭 계통인 사립학교가 57%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벨기에의 정치 발전은 교육 조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989년 1월 국가의 연방화로 인해 교육과 관련한 거의 모든 책임은 각 지역사회가 갖게끔 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는 성인교육을 포함한 경제, 고용, 훈련 등의 다양한 이슈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했다.

또한, 교육과 훈련의 공급은 지역적, 언어적으로 나누어지는 국가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의 폭넓은 참여와 많은 수의 정부 부처들, 특히 교육, 문화, 고용 부처들이 협력하여 국가적·공동체 차원에서 함께 담당하고 있다.

벨기에의 특이점은 다른 여러 유럽 국가가 복지국가와 공공서비스 민영화로 긴축하는 동안 성인교육에 대한 투자를 감소한 반면, 벨기에에서는 서로 다른 지역사회 정부가 성인교육에 대한 노력을 지속했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교육은 지역사회가 벨기에에서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가장 첫 영역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새로 태어난 지역사회 공동체는 낮은 가격, 좋은 품질, 공개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한 성인교육에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공동체의 정체성, 교육, 문화,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플랑드르와 프랑스 공동체 모두에서 사회문화적 성인교육은 문화의 영역에 속한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영역 위치가 매우 독특한 편인데, 그것은 성인교육이 일반적으로 교육 영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공동체들은 관련 기관에 대한 인식과 재정 지원의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무형식·비형식 학습과 시민

교육, 평생교육에 많은 관심이 있다. 공동체들은 이니셔티브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일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며 조직의 선택과 실천에 관한 비판적 태도 및 성찰을 지원한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사회의 가장 낮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I 벨기에의 평생교육

벨기에의 평생교육은 크게 형식 성인교육, 원격 교육 및 파트타임 미술 교육, 플랑드르의 사회·문화 성인교육, 직업 성인교육, 중소기업의 교육 및 훈련, 그리고 민간 교육 및 훈련 기관 분야에서 살펴볼 수 있다.

형식 성인교육

플랑드르와 프랑스 공동체에서의 형식 성인교육은 성인 기초교육, 중등 성인교육, 고등 직업교육의 3단계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형식 성인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지식, 기술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개인 개발, 사회적 역할, 나아가 교육이나 직업에 대한 태도를 학습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인증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때 교육과정은 상업 및 언어 교육으로의 확장이 가능하다. 상업 및 언어 부문의 성인교육의 경우 처음에는 직원들의 업무발전을 위한 기회로 의도되었지만, 오늘날은 가장 흔한 직업 성인교육의 한 형태가 되고 있다.

원격 교육 및 파트타임 미술 교육

형식 성인교육 센터 외에도 두 가지의 다른 성인교육 유형이 있다. 원격 교육(BIS)과 파트타임 미술교육(DKO: 플랑드르, ESAHR: 프랑스 공동체)이 바로 그것이다.

원격 교육은 인터넷이나 지원자가 집이나 개인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는 통신 강화를 통해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그러나 원격교육(BIS)의 활동은 2010년 말을 기준으로 완전히

멈췄다. 파트타임 미술 교육이 청소년들이나 성인들로 하여금 예술적인 교육의 접근을 더 용이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파트타임 미술 교육은 플랑드르에서는 168곳, 프랑스 공동체에서는 112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플랑드르의 사회문화 성인교육

플랑드르에서 사회·문화 성인교육은 매우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사회·문화적 작품은 문화, 여가, 교육, 공동체 중심의 활동을 고취시켰다. 사회·문화 성인교육 관련 양식은 전문적인 예술작품이나 문화유산 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문화 성인교육은 개인 개발 및 사회 변화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플랑드르 사회·문화 성인교육은 SoCiuS(Socio-cultural Adult Work)에 의해 조정된다. SoCiuS는 사회·문화 성인교육을 지원하는 플랑드르 지역 사회의 보조 자치 조직이다.

직업 성인교육

직업 성인교육은 특히 부문 및 조직별 고용 서비스에 의해 제공된다. 세 지역의 고용 서비스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도 정보, 지도 및 기술 복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 및 직업 훈련에 대한 플랑드르 지역의 서비스(VDAB: Vocational education for job-seekers and employees)는 플랑드르에 걸쳐 68개의 교육 센터가 있다. 이밖에 브뤼셀 수도권 지역은 ACTIRIS, 왈로니아 지역은 Le FOREM, 독일어 사용 지역은 ADG가 있다.

VDAB 및 Le FOREM은 고용과 실업자의 직업 기술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마을과 도시에 고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오리엔테이션 및 기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설립했다. 실업자는 고용 시장에 접근하는 기본 기술교육과 직업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교육 기간은 다를 수 있지만 구직

자의 평균 풀 타임 교육은 15주이다. Le FOREM는 현재 30개 직업 훈련 센터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접적 관리를 하는 센터 외에 기업, 공공 기관, 공공 또는 민간단체와 계속적인 직업 교육 계획을 관리하는 일에 참여한다.

중소기업의 교육 및 훈련

기업에서의 도제 계약 시스템은 가장 오래된 과외 직업 훈련 방식이다. 플랑드르에서 이런 교육의 책임은 VIZO(Vlaams Instituut voor Zelfstandig Ondernemen)에 있었고, VIZO는 기업 자문, 교육, 훈련 이 세 가지 영역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였다.

민간 교육 및 훈련 기관

훈련 및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민간 기관은 직업 성인교육과 인적 자원 개발 분야의 성장에서 중요하다. 2005년의 계속 직업훈련 설문조사는 기업이 주로 직원을 훈련시키는 기관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5년 모든 사내 훈련 시간의 44%가 외부 교육업체 및 주요 활동 조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또한, 총 훈련의 56.8%가 민간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었다.

I 벨기에 평생교육의 시사점

우리나라의 정치체제가 지역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시점에 지역 공동체가 발달한 벨기에의 평생교육은 참고가 될 만하다. 또한, 지역 공동체는 결국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벨기에처럼 지방분권에 따라 교육의 자율권이 각 지역에 이양된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평생교육의 형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민이 주도하는 교육적 서비스가 더욱 늘어난다면 평생학습의 참여율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교육현장 노트



이인성

국어교육전공/창동중학교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참 다양한 선생님들이 있었다. 재미있는 선생님,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은 선생님 또는 수업을 대충하는 선생님, 학생들을 자주 때리던 선생님 등등. 교사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선생님들의 모습을 본받아 수업도 잘하고, 재미있고, 학생들과 마음까지 통하는 교사가 되고 싶어 할 것이다. 나 역시 교사가 되기 전부터 그런 좋은 교사가 되고 싶었고, 물론 교사가 된 지금도 그

교사의 사명감은 언제까지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좋은 교사가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나는 '교사의 사명감'이라 부르고 싶다. 교사를 꿈꾸고, 교사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명감을 가졌으리라 나는 믿는다. 다만 교사에 따라 그 사명감이 점차 흐려져 가는 경우가 분명 있을 것이다.

정말 힘들었던 중등임용시험, 나는 3수 끝에 교사가 될 수 있었다. 준비 과정이 힘들었던 만큼 이에 비례하여 교사로서의 자부심은 더욱 커져갔고, 전문성은 물론 학생들에 대한 열정까지 갖춘 훌륭한 교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나의 마음속에는 '교사의 사명감'이 그야말로 충만한 상태였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초임교사인 나에게 학교생활이란 그리 순탄치 않았다. 다양한 업무를 하느라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야만 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던 '멋진' 교사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회사의 신입사원이 된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업무에 시달리다보니 수업을 준비할 시간은 항상 부족했고, 나는 퇴근 시간 이후에서야 수업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수업 준비는 야근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야근 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지만,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 학교에 남아 수업을 준비하였다. 그 고된 시간마저 즐겁게 느껴질 때였

다. 특히, 첫째 담임을 맡았던 반의 학생들은 교우관계에서 갈등이 잦은 편이었는데, 나는 이를 해결하고자 매번 늦게까지 상담을 해주었다. 심지어 퇴근 후에도 메신저나 전화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이야기를 가능한 한 다 들어주려고 노력했다. 지금 돌이켜봐도 첫째만큼 그렇게 열정을 다한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첫째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로서 나에게 주어진 평가는 'B등급'이었다. 'S-A-B' 이렇게 3개의 등급이 있음을 고려하면, 나의 첫째는 다시 말해 '최하등급'이었던 것이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학교에서 교사를 평가하는 기준은 따로 있었다. 물론, 이 글에서 이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의 성과를 평가할 때, '수업' 혹은 '학생 상담'의 영역보다 학교의 '업무' 영역을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있기에 교사의 개인적 노력은 평가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다.

최근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나도 맡은 업무에 따라 S등급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B등급을 받았던 교사 이인성과 S등급을 받은 교사 이인성을 비교했을 때, 과연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 의문이 들곤 한다. 사실 S등급을 받았던 해가 개인적으로는 수업에 있어서 부족했던

해라고 생각한다. 즉, 내가 얼마나 수업 준비를 해서 좋은 수업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학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그저 '교사의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수업을 연구하고 개선해 나갈 뿐이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교사의 사명감'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내 사명감의 유통기한은 과연 언제일까 문득 궁금해졌다. 과연 나는 언제까지 첫째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교사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교직에서 물러나는 날까지 '교사의 사명감'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 물론 아직도 나는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한다. 다만 최근 졸업한 학생들에게 '선생님 수업이 그리워요.', ' 쌤 보고 싶어요.' 같은 문자를 받고 든 생각이 있다. 거창할 것도 없는 시시콜콜한 말들이었지만 사소한 그 문자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그렇다, 학교의 평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교사가 부딪치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 동반자는 학생이다. 결국 답은 학생들 속에 있다.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는 나의 교직생활이지만 나는 학생들과 함께하며 그 속에서 답을 찾아갈 것이다. 언젠가 '교사의 사명감'을 가슴에 품은 채 교직 생활을 마칠 수 있는 날을 꿈꾸며.

학교현장 탐방

‘공연예술중점과정’으로 공연예술인재를 육성해 나가는 시온고등학교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말과 시온고등학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시온고등학교에서 공연예술중점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방유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글로나마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온고등학교는 2017년부터 교육부 지정 체육·공연예술중점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도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는 다채로운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유진 시온고등학교 교사

계열만을 선택지로 제시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공연예술 계열을 추가함으로써 학생들의 계열 선택권을 확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공연예술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소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교는 이러한 소외를 방지하고자 학생들이 국·영·수 기초교과 수업은 물론, 공연실습, 전공실기, 교양실기 등 공연예술 관련 다양한 과목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공연예술 관련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자신의 진로를 탄탄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고등학교의 교육목표와 특징은 무엇입니까?

시온고등학교는 건전한 가치관을 지닌 능력 있는 사람을 육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즉, ‘자주인’, ‘건강인’, ‘도덕인’, ‘능력인’, ‘경천애인’을 길러내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과 열정(Zeal)’, ‘도전과 혁신(Innovation)’, ‘건강과 질서(Order)’, ‘소통과 공유(Networking)’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선도하는 학교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교직원들이 힘을 합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언급하였듯 본교는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또 한 번의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보다 역동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하여 본교의 구성원 모두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온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연예술중점과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공연예술중점과정은 학생들이 개인의 진로에 따라 공연예술과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학생들에게 문과와 이과, 이렇게 두 가지

공연예술중점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연예술중점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적성을 지닌 학생들이 함께 모여 ‘참여하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개인적·사회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연예술중점과정의 대표적 수업의 한 예로 ‘향상콘서트 수업’이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향상콘서트 수업이란 보컬, 랩, 댄스, 연기, 작곡, 악기, 영상제작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한 달간 자신의 전공 실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반 친구들과 앞에서 발표하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자기평가와 더불어 동료 및 전문가 피드백을 실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무대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다음 연습의 원동력이 될 중요한 정보를 습득하게 됩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지원하는 형태의 수업은 학생들에게 긍정적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향상콘서트의 무대 경험은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과 현상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공연예술 분야의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 중에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아이돌이나 연예인을 꿈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학원에 가게 되면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큼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향상콘서트와 같은 무대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되면, 그들은 진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새롭게 찾아가는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향상콘서트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진로를 변경하거나 진로를 보다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기전공 희망자들이 이러한 수업을 통해 예술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져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문화콘텐츠과 등으로 진로를 확장하는 예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수를 꿈꾸던 학생이 피디테이너(피디+엔터테이너)로, 배우를 꿈꾸던 학생이 영화연출가로 꿈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공연예술중점과정 담당교사로서 매우 큰 보람을 느낍니다.

공연예술중점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력교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매년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과목과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협력교사 시스템이 없다면 이 과정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없습니다. 또한, 소수의 전공 학생들이 모여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교사 간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의 지원이 없다면 이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공연예술중점과정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본교는 매년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87%~98% 정도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학생이 작성했던 후기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만족도를 가늠해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졸업한 학생이 실제로 작성했던 후기 가운데 일부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저는 학생의 이 글을 읽으며 향상콘서트라는 수업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략) 공연예술과에 들어와 가장 좋았던 점은 ‘향상콘서트’ 활동이었습니다. 향상콘서트를 매월 준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간 낭비를 많이 줄이게 되었습니다. 평소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한 달 뒤 내 모습이 바뀐다고 생각하니 연습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할 때마다 조금씩 실력이 늘어난 것을 느꼈고, 다양한 전공의 친구들을 보며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자극을 받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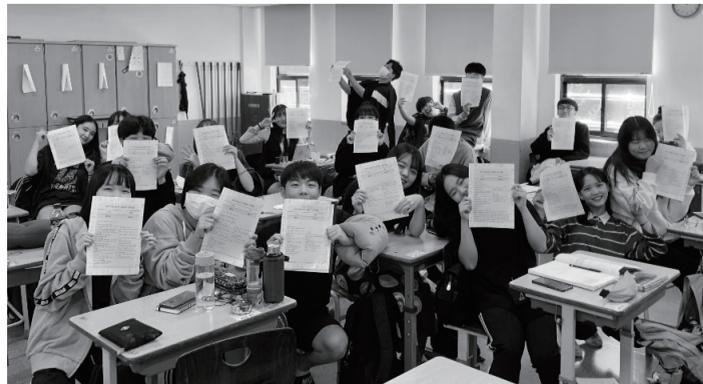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재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사에게 있어 ‘겸손과’ ‘식지 않는 열정’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단에서 자신의 전공을 몇 년 이상 가르치다 보면 현실에 안주하게 되어 수업연구를 게을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게으름을 타파하고 지식에 대한 겸손한 마음과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교수법 등을 꾸준히 연구하고 고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자신만의 교직원관과 신념이 없다면 학교생활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르침과 배움의 기쁨 또한 만끽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선생님들 만나는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초임 시절,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열정 가득한 마음으로 교직 생활에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력이 쌓일수록 그런 열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임용을 위한 막연한 공부보다 자신이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며 공부하기를 선택교사로서 부탁드립니다. 그 신념은 책에 적혀있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각자의 가치관으로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교사가 되더라도 그 신념을 바탕으로 한 열정이 10년, 20년 이상 식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학생을 먼저 생각하고, 겸손한 자세로 스스로의 성장을 게을리하지 않는 열정적인 교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미래의 어느 날 각자의 신념을 지키는 멋진 교사로 만나길 기대해 봅니다.

안수진 기자 dksinws61@korea.ac.kr

공연예술중점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적성을 지닌 학생들이 함께 모여 ‘참여하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개인적·사회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원하는 이러한 형태의 수업은 학생들에게 긍정적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 탐방

예술가, 그들의 삶의 현장 <아티스트로 살아가기>

이번 문화탐방에서는 '예술가'라는 직업을 선택한 20-30세대의 삶의 모습과 작업 현장을 담은 '아티스트로 살아가기'라는 전시를 소개합니다. 이번 전시에는 젊은 작가들의 예술에 의한, 예술을 위한 고민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는데요. 왜 그들이 안정적인 직업 대신 부침(浮沈)이 많은 예술가라는 직업을 선택했는지, 이 청년들이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며 이번 전시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티스트로 살아가기
ARTIST SURVIVAL
2020.2.19.-5.31.

- 전시장소: 서울시 중로구 새문안로 68
홍극생명빌딩 3층 세화미술관
- 전시기간: 2020.02.19.(수)-2020.07.31.(금)
(매주 월요일 정기휴관)
- 관람시간: 금-화 오전 10시~오후 6시
목 오전 10시~오후 8시 30분
- 관람요금: 무료
- 관람문의: 02-2002-7787

<아티스트로 살아가기>

- 전시장소: 서울시 중로구 새문안로 68
홍극생명빌딩 3층 세화미술관
- 전시기간: 2020.02.19.(수)-2020.07.31.(금)
(매주 월요일 정기휴관)
- 관람시간: 금-화 오전 10시~오후 6시
목 오전 10시~오후 8시 30분
- 관람요금: 무료
- 관람문의: 02-2002-7787

예술가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아마 '창작'으로 수렴될 것이다. 그렇다. 예술가의 일이 창작이라는 사실은 너무 자명하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예술가의 '창작'이라는 행위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한가. 재화를 생산·소비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비물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 노동 행위의 의미가 저평가되고 있지는 않은가. 때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고고한 행위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번 전시에 참여한 신진작가들은 이러한 우리의 편견을 뒤집어 놓는다. 그들은 이러한 사회의 편견과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맞닥뜨린 것이다. 예술 행위가 결코 현실과 괴리된 것이 아님을, 오히려 예술이 현실 세계의 진실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I 노동 그리고 예술



이의성 작가의 작업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노동'이다. 그는 특히 예술 노동과 그것을 둘러싼 이중 노동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유실 노동 에너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물리적 드로잉'이라는 작품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캔버스 천을 뜯는 작업을 하던 작가는 이 과정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는 실을 모아 중량을 측정한다. 떨어진 실의 중량은 총 3g. 그런데 천을 뜯기 전과 뜯은 후의 캔버스 무게 차이가 5g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2g의 실의 행방이 묘연한 셈이 된다. 과연 이 2g 실은 어디로 사라졌던 말인가. 작가는 이 2g을 보이지 않는 초과노동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는 작가의 시선이 '포장지'로 향하게 된다. 포장지는 보통 그것으로 둘러싸인 작품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리고 포장 작업을 한다는 것은 곧 그만큼의 추가 비용과 노동력이 투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과

노동력은 작품이 포장지 밖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 무가치한 것이 되어 버리기 일쑤이다. 포장지는 이내 구겨진 채로 버려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가는 이러한 과정이 예술 노동과 닮아 있다고 생각한다. 작품 하나를 만들어 내기 위해 투입된 작가의 노력 및 노동 행위보다 산출된 작품에만 집중하게 되는 현실이 마치 포장지가 버려지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작가는 버려진 포장지의 이미지 패턴으로 다시 포장지를 만들어 포장지의 가치를 환원한다. 이때, 다시 탄생한 포장지는 기존의 가치를 뛰어넘은, 즉 기존의 가치로부터 원심 분리된 새로운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의성 작가가 예술 작품에 투입되는 노동에 집중하였다면, 유소영 작가는 현실 사회에 투입되는 노동에 집중한다. 유소영 작가는 노동자의 노동 행위를 불빛에 달려드는 나방의 날갯짓에 비유하여 현대인의 노동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그는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들을 인터뷰하여 이들의 열 데이터를 '채집'한다. 마치 나방이라는 곤충을 채집하듯이 말이다.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 채집된 열 데이터를 '춤의 궤적'이라는 작품으로 연결 짓는다. '춤의 궤적'은 노동자의 노동시간 비율에 따라 할로겐 램프가 ON/OFF를 반복하도록 함으로써, 결국에는 할로겐 램프가 그 아래 놓인 조형물을 녹이게끔 설정한 작품이다. 램프 아래 놓인 조형물은 결국 현대의 많은 노동자들을 상징할 것이며, 그것이 녹아내리는 것은 곧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나방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불을 향해 달려드는 모습과 반복되는 노동 속에서 모든 일생을 다 보내고 마는 현대인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듯하다.

II 현실 그리고 예술

김예슬의 '나이트 클럽' 연작은 그가 작업과 생계를 병행하기 위해 약 5년간 나이트 클럽의 디자이너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 설치된 세 개의 폴대에는 그가 클럽에서 경험한 내용을 담은 문구가 적혀있다. 또한, 'CNSTLLTN'이라는 작품의 앞면에는 클럽과 관련된 이미지가, 뒷면에는 그가 일하며 겪고 들은 문구가 적혀있다. 이를 감상하다 보면 당시 작가가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아티스트로 살아가기 위해 겪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간접적

으로 마주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 작품은 소위 고급이라는 이미지로 취급되기 힘든 '날갯의 현실'이 미술관이라는 공간에서 하나의 작품으로 재탄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최은혜 작가는 예술 활동과 그림을 가르치는 일을 병행하는 바쁜 현실 속에서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여 그는 깊숙하고 은밀한 세계에 도달한다. 특히, 그는 고요하기 때문에 보다 자신의 내면 의식에 집중할 수 있는 '밤' 시간에 집중하게 되고, 이러한 밤이 은밀하지만 생생한 에너지가 흘러넘치는 미지림(昧知林)과 닮아 있다고 생각한다. 작가는 이를 토대로 '의식의 밤' 시리즈를 창작해 내는데 이 작품에는 밤을 상징하는 '달'이 곧잘 등장한다. 그리고 '세계공유'라는 작품에 이르러서는 이 달의 이미지에 미지림의 활엽, 넝쿨 등의 이미지가 덧붙여져 그 의미가 더욱 심화된다. 활엽과 넝쿨이 이리저리 엉겨있는 미지림의 모습은 달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다양한 의식세계를 모두 포용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안정감을 불러일으킨다.



III 삶의 자세 그리고 예술

2011년 서른 살이 된 고사리 작가는 공자의 '이립(而立)'이라는 말을 떠올린다. 이립은 '마음이 확고하게 도덕 위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 간단히 말하면 '저 스스로 선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작가는 서른 살이 된 자신의 모습에서 여전히 흔들리고 휘청이는 순간을 발견한다. 아직 이립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현재 서른 살을 앞둔, 서른 살, 서른 살을 넘어선 우리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작가는 생각을 전환해 이립에 도달하지 못 한 자신을 책망하기 보다는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이립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립'이라는 표현을 취하게 된다. 10년에 걸쳐 창작된 '이립의 자세'는 바로 서 있기도 하고, 꺾여 있기도 한 막대들과 그 그림자를 시각화한 작품으로, '이립'이라는 표현을 대하는 작가의 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스스로 바르게 서 있다고 믿는 순간도 어찌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고, 꺾여 있다고 생각한 순간도 어찌 보면 바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스스로 서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꺾여 있다고 속단하여 좌절하지 말라는 뜻이 아닐까 싶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지키는 것이 어찌하면 '이립'에 도달하기 위한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박지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오늘만 허락된 자리'라는 작품을 통해 '자리'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을 뒤집고자 한다. 흔히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통해 미루어 보건대, '자리'라는 것은 이렇게 강력한 힘을 지니곤 한다. 성공의 척도로도 여겨지는 '자리', 우리들은 이 자리에 환상을 가지기도 한다. 하지만 작가는 앞서 언급하였듯,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가 지니는 의미를 다시 정립해 보게 한다. 우선 작가는 관람객들이 전시장 내의 유일한 창을 통해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그 창속 너머의 풍경은 작가가 제작한 틀 안에서 서만 감상이 가능하다. 즉, 관람객들은 풍경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자리'를 얻긴 하였지만 주체적으로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작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틀을 통해 풍경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즉, 자리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허황된 것일 수도 있음을 역설하는 것이다. 어떠한가. 우리는 아직도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만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은가. 작품의 가치,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의 척도는 결코 '자리'가 될 수 없다는 삶의 자세를 작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예술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현실, 생활과는 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우리가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현실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창조해 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이번 전시를 통해 살펴본 작가들은 이러한 편견과 통념을 뒤엎고 있다. 예술이 곧 현실이며, 현실이 곧 예술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술은 더 이상 우리에게 머나먼 세계의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예술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피어난 작품들은 그렇게 대중을 예술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다. 그들이 안정적인 직업이 아닌 예술가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의 예술계를 짚어줄 신진작가들의 역할이자 소명은 아닐까.